

F.B.I EXECUTIVE REPORT

ON GLOBAL BUSINESS AND ECONOMY



Hanyang Univ. School of Business

FOREIGN BUSINESS INTELLIGENCE



Contents August 28, 2013

Biweekly Report

- 2** Two-Faced Facebook: We Like It, But It Doesn't Make Us Happy
최진영, from TIME
- 4** Apple iPhone Rumor Boosts Biometrics Companies
조창우, from Bloomberg Businessweek
- 6** Through The Keyhole
김영은, from The Economist
- 9** Here Comes iTunes Radio, Threatening to Shake Up Music Streaming
이은경, from TIME
- 11** Tesla's Model S Sedan Destroys Safety Tests ... Literally
김윤희, from Bloomberg Businessweek

Special Report

- 14** Emerging World Loses Growth Lead
김상훈, from The Wall Street Journal

Two-Faced Facebook: We Like It, But It Doesn't Make Us Happy

* 기사출처: [TIME \(2013.08.15\)](#)

* 요약자: 최진영 (skyss92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페이스북, 부작용, 양면성

“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페이스북의 과도한 사용”

□ 페이스북 이용량이 많을수록 더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됨

- 미시간대 신경과학 연구팀은 페이스북 이용자를 대상으로 감정변화를 연구한 뒤 결과를 발표함
 - 실험 참가자들은 2주 동안 하루에 5번, 2시간마다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지난 2시간 동안 페이스북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문자로 보고함
 - 그 결과 페이스북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수록 불행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음
- 이러한 결과에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'사회적 비교(social comparison)'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
 - 사람들은 페이스북상에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친구들보다 열등하다고 느낌
- 이와는 대조적으로 친구와 전화로 대화하거나 직접 만난 사람들의 경우에는 행복감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

□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페이스북 내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자기 통제력이 낮아지기도 하지만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함

- 콜롬비아 대학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만을 내보일 수 있는 점과 그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을 즐긴다고 발표함
- 자신의 좋은 모습만을 보이는 심리에는 자량과 과시가 있음


□ 그러나 많은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타인들의 좋은 면만을 보고 때로는 열등감과 소외감을 느낌

- 친구들의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보며 상대적으로 자신은 불행하다고 느끼고 자신의 글에 댓글과 '좋아요'가 적으면 소외감을 느낌
-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SNS, 특히 페이스북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감정적인 상처를 겪음
 - 자신은 친구의 사진에 '좋아요'를 눌러주었는데 친구는 안 눌러주었다든지, 전 애인이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써놓은 것을 보았다든지 등 여러 가지 일을 통해 상처를 받게 됨

□ 페이스북이 인간의 심리에 항상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치는 것은 아님

- 페이스북의 현명한 이용은 개인의 사회적인 교류 범위를 넓혀주고 외로움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낳음
- 페이스북이 개인의 행복감을 더해주거나 감소시키는 것은 그 사람이 온라인 상의 교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피동적인 방관자인지에 달려있음
 -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가까이 사는 친구는 직접 만나러 가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

□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넘어서 직접적인 소통과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음

- 페이스북이 사회적 연결이라는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, 정신적인 건강 측면에서는 역효과도 있음을 인지해야 함
- 전문가들은 대화를 나눌 때 SNS보다는 전화 통화를, 그보다는 직접 만나서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고 조언함
- SNS의 허와 실을 명확히 구분하고, 지혜롭게 이용하는 자세가 필요함 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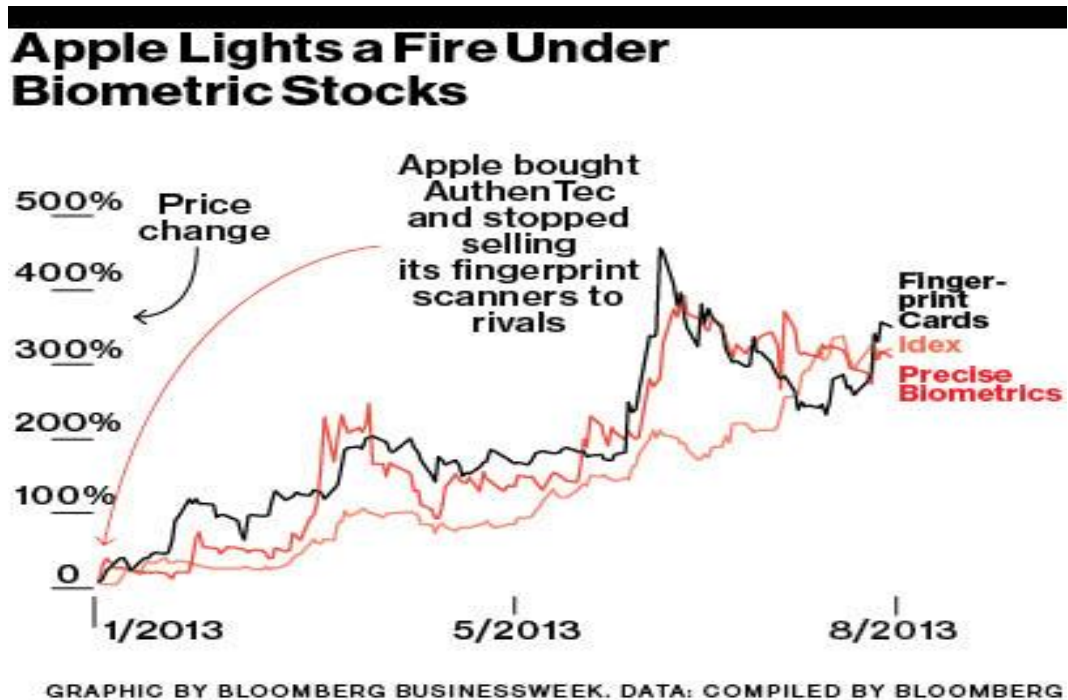
Apple iPhone Rumor Boosts Biometrics Companies

* 기사출처: [Bloomberg Businessweek \(2013.8.22\)](#)

* 요약자: 조창우 (cwslam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아이폰, 지문인식

“차세대 iPhone에 도입되는 지문인식 기술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”



□ 다음 세대의 아이폰이 지문인식 기능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잇달아 관련 산업들도 부상함

- 애플이 작년 생체인식 회사인 오센텍(AuthenTec)을 3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 이후, 오센텍은 애플의 경쟁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함
- 오센텍과 애플의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, 관련 업종의 주요 업체들의 주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함
 - 스웨덴 생체인식 회사 Marschall의 주가는 2배, 스웨덴 생체인식 회사 Fingerprint Cards의 주가는 10배, 노르웨이 생체인식 회사 IDEX의 주식은 4배 이상 상승함

□ 전문가들은 차세대 아이폰에 도입될 지문인식 기능은 전자결제 및 원격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함

- 애플의 내부 관계자는 지문인식 판독 장치가 더 빠르고 편한 전자 결제를 실현할 것이라고 주장함
- ABI 리서치와 KGI 증권은 새로운 기능의 도입을 통해 애플이 안드로이드 진영과 윈도우 진영을 제치고 크게 앞서 나갈 것으로 예상됨


□ 지문인식 기능은 이미 공공영역에서 도입되고 있으며 애플은 이를 곧 출시될 새 모델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됨

- 정부나 은행 등 공공영역에서 생체인식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미 미국, 암스테르담, 알바니아, 칠레 등에서는 생체인식 기술이 ID카드를 통해 상용화 되었음
 - 미 국방성은 군인들을 생체 스캔을 하기 위해 생체인식회사 압티스(AOptix)와 3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함
- 2013년 10월 출시가 예정된 iPhone의 다음 버전에서 지문인식 기능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

□ 같은 사업영역으로 분류되던 모바일 스캐너 사업은 생체인식 업체들에 밀려 불황을 겪고 있음

- 모바일 기기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스캐너 업체는 축소된 스캐너 장비를 기기에 탑재하려고 했으나, 지나치게 비싼 가격과 짧은 수명 때문에 실패를 거듭함
- 스마트폰에 스캐너의 기능을 탑재하기엔 광학 스캐너는 많은 한계를 지닌 것으로 판단되어 변화된 시장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음

□ 한편 애플의 지문인식 기능 도입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는 상황

- 모토로라의 Neil Mawston 전무이사는 지문인식 기능을 도입한 아트릭스 스마트폰이 2009년 실패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문인식 기능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함
- IDC의 한 시장조사 분석가는 지문인식 기술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만 이 기술이 주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
- Fingerprint Cards사의 최고경영자인 Johan Carlstrom은 애플이 만일 뛰어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면, 기존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

Through The Keyhole

* 기사출처: [The Economist \(2013.08.18\)](#)

* 요약자: 김영은 (kye9242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인도, 금융 위기

“인도가 직면한 금융 위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되고 있는 방안들”



□ 지난 8월 17일, 인도의 최고 정책입안자들이 인도 금융 시장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임

- 현재 인도의 국무총리이자 중앙은행의 수장 격인 만모한 싱이 주도함
- 인도는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정책입안자들은 지난 2년 동안 긍정적인 예측만을 보도함
 - 하지만 이번 모임에서 만모한 싱은 경제가 “굉장히 어려운 환경”에 직면하고 있다고 인정함

□ 전문가들은 자금통제 등 인도가 채택한 새로운 경제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함

- 8월 14일에 자본도피 양상을 막기 위해 자금 통제안을 발표했으나 이는 외국 투

자자의 자금도 동결시킬 것이란 불안감을 조성함

- 그로 인해 인도의 개개인과 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가 제약을 받고 있음

□ **인도 중앙은행(RBI)의 새로운 총재 라구람 라잔은 금융 위기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려고 노력하고 있음**

- 그는 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“우리는 매일 새로운 정책을 만들지 않을 것”이라는 일관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 노력함
- 라구람 라잔은 공식적으로 9월 5일부터 정식 인계를 받아 본격적인 임무를 시작할 예정임

□ **RBI의 자본통제, 단기 금리 인상을 위한 금융 시장 개입 등의 현존정책들은 루피화를 안정시키기에는 충분하다고 여겨짐**

- 다른 나라들보다 더 높은 생산성 향상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, 루피화의 가치는 이론적으로 약 55달러에서 60달러 사이의 값으로 책정됨
 - 하지만 이미 시장은 주말에 1달러당 61루피 이상을 지급함
- 이러한 루피화의 평가절하와 선진국들의 경기회복 덕분에 수출은 회복되고 있음
 - 7월에는 수출이 12% 성장함
 - 인도 GDP에서 약 4% 정도의 해외 매출을 창출해내는 인도의 IT 서비스 기업들은 경영에서의 상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

□ **한편 인도 정부는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연료 보조금을 줄이고 철광석 수출 전면 금지를 철폐할 예정**

- 수입된 연료를 관리하는 가격이 오르면서 수요가 억제될 가능성도 있음
- 과거 부패, 사기 사건들로 인해 금지된 철광석 수출을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하는 중임
 -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전의 연간 100억 달러 수출을 이룰 때의 생산량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함

□ **인도의 금 수입이 더욱 엄중하게 단속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, 금에 대한 과도한 수요와 규제를 무시한 밀수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**

- 인도로 들어오는 총 금괴 수송을 제외하고도 2013년 3월까지 기록된 연간 경상 수지 적자는 4.8%에 달함
 - 이는 관리 가능한 2%보다 훨씬 큰 수치로 인도의 심각한 금 중독을 반영함
- 하지만 규제를 더 엄격히 하더라도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처럼 금 밀수가 더 극성을 부릴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임
 - 규제 이후, 인도의 수입 금괴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두 배 증가함
- 금 수입품에 대한 세금이 이미 인상됐지만, 훨씬 더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임

□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인도 은행들의 자본재구성을 배제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되찾으려는 속임수를 쓰고 있음

- 현재 공공 부문 대출기관들은 은행 산업에 전체의 10-12%에 해당하는 대출금이 불투명함
 - 약 20%의 공공 기반 시설 대출금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
- RBI의 부총재인 차크라바티는 대부분의 은행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실패할 위험이 없다고 주장함
 - 하지만 해외 투자자들은 인도의 부패한 대차대조표를 근거로 투자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
- 미국이 금융위기 당시 2009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사용한 것처럼 인도 역시 비슷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임
 - 은행 자본재구성 비용을 이미 한계상태인 인도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 **FBI**

Here Comes iTunes Radio, Threatening to Shake Up Music Streaming

* 기사출처: [TIME \(2013.08.19\)](#)

* 요약자: 이은경 (lee0705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

“기존 스트리밍 서비스사의 혁신과 아이튠즈 라디오의 등장”

□ 판도라(Pandora)와 스포티파이(Spotify)사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 산업에서 입지를 굳힘

- 판도라는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고객의 청취 습관을 분석하여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를 시행, 최근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음
 - 2011년과 비교해 사용자가 2배 증가하여 7천만명에 이름
- 스포티파이는 사용자들에게 선택한 모든 곡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크게 성장함
 - 2011년 미국에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개시하였고,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2천4백만 명의 사용자들을 보유함

□ 그러나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기업의 수익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손실액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남

- 스포티파이는 사업을 확장할 때마다 연간 손실액이 늘어나고 있으며, 판도라 또한 확실한 수익모델을 찾지 못함
 -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스포티파이의 2012년 손실액은 7천8백만 달러로 추산됨
 - 판도라 역시 지난 회계 연도에 3천8백만 달러의 순 손실을 감수함
- 두 회사의 가장 큰 지출액은 음원 저작권료를 사는데 쓰였으며, 스포티파이는 수익의 70%, 판도라는 수익의 60% 정도를 지급함
 -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음원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저작권료도 상승하는 '규모의 비경제'를 발생한다고 지적

□ 스포티파이와 판도라는 수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료 사용자를 늘리고 광고의 수익을 높이는 등의 전략을 세움

- 스포티파이는 무료 음악 서비스를 한 달에 10시간으로 축소하여, 더 많은 유료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
- 판도라는 광고에 의한 수익을 증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데스크탑에서 모바일로 옮겨가는 추세에 따라 모바일 광고에 기대를 걸고 있음


□ 판도라는 미국인들의 청취 습관을 고려하여 새로 출시되는 차에 자사 스트리밍 서비스를 탑재시킴

- 미국인들이 대부분 자신의 차에서 라디오를 듣는 습관을 고려하여 차에 판도라 서비스를 탑재시킴
- 이에 따라 올해 미국에서 팔린 1/3 이상의 자동차에 판도라의 서비스가 설치됨
- 분석가들은 판도라가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 성공하고 더 큰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다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함

□ 한편 애플이 새롭게 아이튠즈 라디오를 출시하면서 음악 스트리밍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고됨

- 지금까지 애플은 디지털 트랙과 앨범을 판매해왔으나, 음악 스트리밍 시장으로 진출을 꾀하기 위해 라디오의 베타서비스를 시행함
- 애플은 세계 제일의 음악 소매기업이며, 아이폰과 아이팟의 기존 고객층이 있다는 점에서 판도라와 스포티파이를 위협할 것이라 예상됨

□ 하지만 애플의 음악 스트리밍 시장 진출은 기존의 기업들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애플 사용자들을 유지할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

-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다면 애플은 산업 내에서 가장 포괄적인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됨
- 애플은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개별적인 음반사들과 계약을 협상해야 하는데, 이에 높은 로열티를 지급함
 - WSJ은 빠르게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애플에게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함 

Tesla's Model S Sedan Destroys Safety Tests ... Literally

* 기사출처: [Bloomberg Businessweek\(2013.08.20\)](http://BloombergBusinessweek(2013.08.20))

* 요약자: 김윤호 (yghkim3937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**테슬라 모터스, 모델 S**

“테슬라 모터스의 모델 S가 보여주는 안전성”

□ 테슬라 모터스(Tesla Motors)에서 발표한 모델 S는 자동차 평가에서 별 5개를 획득했으며, 가장 안전한 자동차로 인정받음

- 모델 S는 전기로부터 모든 동력을 공급받는 테슬라 모터스의 고급 세단
- 모델 S는 자동차 전체 등급과 모든 하위 평가 영역에서 별 5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룸
- 또한 차체에 충격이 가해질시 운전자에게 가장 적은 피해를 준다는 것이 인정됨

□ 테스트에서 모델 S의 지붕은 놀라운 강도를 보여 우월성을 증명함

- 테스트에서 모델 S의 지붕을 눌러 부수기 위해 분쇄기를 사용했지만, 오히려 분쇄기가 부서짐
- 테슬라 모터스 측은 짐으로 가득 찬 모델 S 4대를 지붕 함몰 없이 한 대의 모델 S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다고 주장함

□ 하지만 Tesla Motors 사의 과시는 곧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기도 함

- 그들의 보도에는 쇼맨십, 혹은 허장성세가 포함된 경우가 많음
- 웹상에서 시사평론가들이 이 같은 테슬라 모터스의 자기 과시를 조롱함

□ 현재 테슬라 모터스와 모델 S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명암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, 주력 기종의 테스트 결과나 수상 실적이 그 가치를 입증함

- 모델 S는 소비자가 쉽게 접근하기 힘들 정도로 비싸다는 단점이 있음

- 또한 테슬라 모터스는 그들이 견실하고 수익성이 좋은 기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
- 하지만 그들의 주력 기종이 자동차 산업 테스트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고, 자동차 제조 업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상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저력을 보여줌

□ **모델 S가 아주 안전하다는 점을 뒷받침해 주는 몇 가지 직접적인 이유가 있음**

- 그들은 현재 프렁크(frunk)로 잘 알려진 전방 트렁크를 가지고 있는데, 이는 모델 S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함
- 또한 전기 모터가 뒤쪽 차축에 가깝게 탑재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받게 됨

□ **특히 차가 전복되는 위험 상황에서 모델 S는 상당히 뛰어난 모습을 보임**

- 일반적인 테스트에서 모델 S는 뒤집어지지 않았으며, 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가 전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
 - 배터리 팩이 차 실내 바닥 아래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인데, 이는 차체의 무게 중심을 매우 낮은 곳에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함
- 이는 동시에 운전자가 편하게 핸들링 할 수 있도록 도우며 안전성까지 보장해주는 제2의 효과까지 갖게 됨 **FBI**

Emerging World Loses Growth Lead

* 기사출처: [The World Street Journal \(2013.08.11\)](#)

* 요약자: 이상훈 (hooney704@hanyang.ac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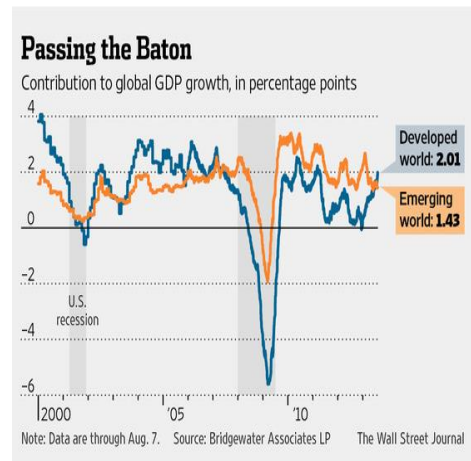
* 키워드: 신흥시장, 선진국, 경기둔화

“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, 세계경제의 모멘텀 이동과 그에 대한 우려”

□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의 최근 보고서는 세계 경제 성장 주도 축이 금융 위기 이후 선진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함

-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세계 경제 회복 모멘텀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면서 선진국이 세계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

- 현재 전세계 74조 달러의 국내총생산(GDP)의 규모를 늘리는데 미국, 일본, 유럽 등 선진국의 기여도가 중국, 인도, 브라질 등 신흥국보다 높음



- 이러한 세계 자금 흐름의 재편은 기업의 성장 전망을 완전히 뒤바꿀 것으로 예상됨

□ 경제 성장의 모멘텀 이동은 일부 선진국들의 예상 밖의 선전과 신흥시장의 부진한 경제 성적이 맞물려 발생하였음

- 일본의 경우 아베 정권의 경기 회복 정책에 따른 효과로 경제성장률이 반등함
 - 2013년 2분기에 2.6%의 성장률을 기록함
- 미국 역시 회복세를 보이며 꾸준한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유럽도 경제 침체가 완화되면서 성장률이 소폭 상승함
- 반면, 지난 몇 년간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보여준 브라질, 러시아, 그리고 중국과 같은 신흥시장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줌

□ **신흥시장이 선진국 경제 회복으로부터 직접적인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보임**

- GDP 성장률 판단의 근거가 되는 구매관리자지수(PMI)의 경우 선진국은 상승세가 뚜렷하지만 신흥국은 2009년 이후 최저수준을 나타냄
- 유럽의 잠정적인 회복도 아직 신흥국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
- 일본의 최근 엔저 정책이 이뤄낸 일본 경제의 '르네상스'는 수입물가의 상승으로 자국 제품의 높은 선호로 이어짐

□ **미국의 금리 상승, 임금 수준의 정체, 소비 둔화 등은 신흥국가의 경기 둔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**

- 미국의 경제회복으로 인한 금리 상승은 일부 신흥국의 자금조달에 악재로 다가옴
-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임금 수준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, 소비자들의 수요 감소는 수입 제품에 대한 수요 둔화로 이어짐
- 미국의 이러한 특이한 경기회복세는 과거에 선진국의 성장이 아시아와 같은 수출 주도 국가의 경제 성장을 떠받쳐 왔던 양상을 깰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함

□ **이 뿐만 아니라, 중국의 경기둔화와 신흥국의 내부 사정도 신흥시장의 성장 둔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**

- 중국의 경제지표는 반등세를 나타냈지만 중국의 원자재 수요 감소는 남미와 동남아에 악영향을 미침
 - 남미 최대 경제대국인 브라질은 중국의 철광석 수요 감소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단 1%에 그침
 -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도 중국의 석탄 및 팜유 수입 감소로 타격을 입음
- 인도는 정부의 부실한 경제 정책으로 인해 루피화의 환율이 급락했으며, 경상수지 적자 폭이 증가했고,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면서 투자와 소비가 모두 감소함

□ **신흥국의 성장 둔화는 지난 몇 년간 해외 진출에 열을 올린 다국적기업들에게 큰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**

- 몇몇 기업들은 경기 둔화 속도가 심각하게 예상을 웃돈다며 예상 매출액 증가율을 낮추고 있음
- 심지어 자국에서 신규 채용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함

□ **신흥국 경기 둔화가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다는 주장도 있지만, 단기적인 실적은 경기둔화의 영향을 받음**

- 아디다스의 경우 러시아의 판매 부진이 실적에 압박을 주고 있음
- 아디다스의 상반기 중국 매출액 증가율은 6%로, 예년에 비해 상당히 감소함
 - 이는 재작년 상반기 매출액 증가율 38%, 작년 상반기 19%와 대비됨

□ **그럼에도 일부 기업은 신흥시장의 성장 둔화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음**

- 브라질의 철강업체는 중국이 성장둔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철광석을 소비할 것으로 전망함
- 많은 투자자가 중국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, 기업 관계자들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예상하고 있음 **FBI**

FBI는 한양대 경영대학의 비상업적 지식봉사 동아리로, 본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/경영 이슈에 대한 교내 상호 학습을 위해 동아리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. 만약 외부에서 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, 교외 지식봉사차원에서 무상으로 공유하고는 있으나 다른 상업적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

한양대학교 경영대학

보고서 구독신청 및 변경 (fbi.hanyang@gmail.com)

Advisor: 이웅희,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(victory@hanyang.ac.kr)

Editor in Chief: 김주찬 (kjcjuchan@hanyang.ac.kr)

Associate Editor: 성민화 (alsghk1014@hanyang.ac.kr)

Copy Editor: 전주영 (junjy9111@hanyang.ac.kr), 박인철 (star11kers@hanyang.ac.kr)